Ⅲ 경제환경과 소비자 인식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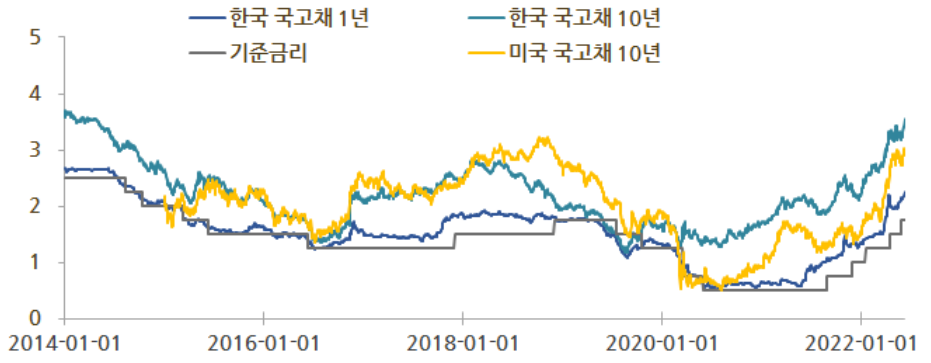
1. 경제환경 변화

○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,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중금리 상승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

-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국제 공급망에 장애가 발생하고, 에너지와 기타 원자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
-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지수는 연초 3,000포인트에서 7월 현재 2,300포인트까지 하락함

〈그림 Ⅲ-1〉 한국, 미국 금리 추이

(단위: %)



자료: Bloomberg

○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,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음

- IMF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

○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적연금시장에서도 다양한 금융환경에서 소비자의 노후자산 적립과 종신연금 수령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종신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투자형 상품의 개발도 요구됨

- 저금리 및 금융시장 안정기에는 변액연금과 같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고 고금리 및 금융시장 침체기에는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을 것임
- 한편, 현재와 같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고 향후 전망이 어려운 시기에는 투자형 상품과 이율형 상품의 혼합형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[1]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 있음(김유미 2022)
- 종신연금 수령기에도 금융환경에 따라 투자형 상품에 대한 니즈가 클 수 있으므로 정기인출 펀드, 변액연금의 GLWB(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) 옵션 등과 같이 종신연금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의 공급도 요구됨

〈표 Ⅲ-1〉 금융시장 환경과 연금상품 니즈

금융환경	연금 가입 목적	
	노후자산 적립	종신연금 수령
저금리 및 금융시장 안정	투자형 연금상품	정기인출 펀드, GLWB
금리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	하이브리드형 연금상품	-
고금리 및 금융시장 침체	이율형 연금상품	종신연금, 고연령 확정형 연금

2. 소비자 인식 변화

○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투자규모가 확대되었으며, 특히 주식처럼 손쉽게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ETF(Exchange Traded Fund) 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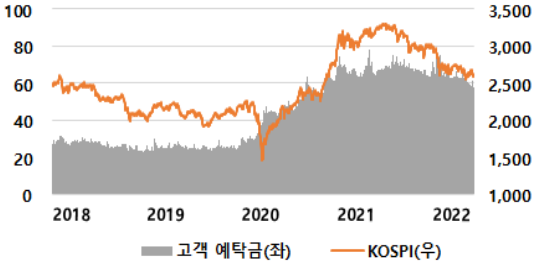
-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1,500선까지 급락했던 코스피지수는 2021년 초 3,000 포인트를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반등하였으며,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모두 크게 확대됨
- 특히 ETF의 경우 일반 주식처럼 매매가 편리하며 펀드에 비해 수수료와 운용보수가 낮고, 특정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및 인버스, 특정 섹터,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관심이 크게 증가함

1) 예를 들어, 연금상품의 수익률이 주가지수에 연동하지만 주가지수 하락 리스크를 제한하는 지수연계형 연금(Fixed Index Annuity; FIA)과 하이브리드 변액연금(Registered Index-Linked Annuity; RILA) 등이 있음

- 2019년 51조 7천억 원 수준이었던 ETF 순자산총액은 2021년 약 74조 원으로 증가하였고, 국내에 상장된 ETF 수는 2019년 450개에서 2021년 534개로 20% 가까이 증가함

〈그림 Ⅲ-2〉 주가지수(2018~202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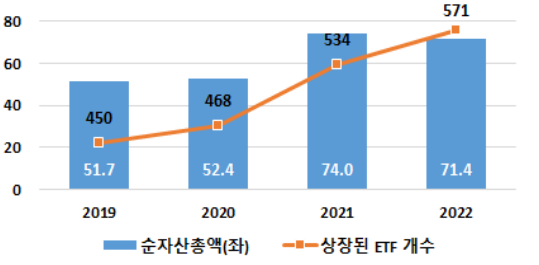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, 포인트)



자료: 한국거래소

〈그림 Ⅲ-3〉 ETF 규모(2018~2022년)

(단위: 조 원)



주: 2019~2021년은 연말, 2022년은 6월 13일 기준임
자료: 한국거래소

○ 한편,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은 개인이 투자 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, 이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

-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다양한 디지털 금융회사가 등장하고 기존 금융회사도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·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,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도 이전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충성도는 낮아지고 있음
- 이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ETF 시장 규모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, 코로나19 이후 형성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형 상품 선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